

보도 희망 일시	제한없음(즉시)
문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안웅섭 전화: 031-888-9055, 이메일: aws6912@snu.ac.kr

배포일: 2024.12.16.(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2회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성황리 종료

- 서울대학교 · 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 이하 ‘융기원’)은 12월 13일(금)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 위치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제2회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 두 번째 대회를 맞았다.
- 전국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4개 대학 소속의 42개 팀, 118명이 참가해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 대회 과제로는 2D 객체 검지, 3D 객체 검지, 이중 객체 캘리브레이션, 다중 객체 추적 등 4가지 주제가 주어졌으며 참가팀들은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가 제공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했다.
- 대상은 네부캠 팀(임찬혁, 정현우, 최재훈, 박지완)이 수상했으며, 극한 상황에서 도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2D 객체 검지 모델을 개발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최우수상은 LCK_driving 팀(이동훈, 강다빈, 최희정)이 3D 객체 감지 최적화 데이터 모델로, 냉수온수정수 팀(전효원, 정서연, 최송연, 윤정수)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다양한 객체를 탐지하는 2D 검출 모델로 각각 융기원장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21년부터 20여 종에 걸쳐 약 600만 건의 자율주행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해왔다.
-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제로셔틀과 판타G버스 운영을 통해 수집된 CCTV, 라이더, 레이더 데이터 등은 자율주행 연구와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개발을 도왔다.
- 차석원 융기원장은 “이번 대회는 자율주행 분야가 스피노프 기술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 라며 “수집된 데이터가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시장 확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과 기술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
- 융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 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 라이더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